

# 학령기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노 승 옥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 목 차

I. 서 론	V. 결론 및 제언
II. 연구방법	참고 문헌
III. 연구결과	영문 초록
IV. 고 찰	

## I. 서 론

### A. 연구의 필요성

아동은 급격하게 성장 발전하면서 감각하고 사고하며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 작용하는 존재이다.<sup>1)</sup>

Erikson<sup>2)</sup>의 성장 발달단계에 의하면 학령기 아동은 근면기(Stage of Industry)에 속하며 육

체적, 정신적으로 활발한 시기에 처해 있으므로 활동하려는 내적 충동이 클 뿐아니라 비현실적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시기로서 신변의 자극에 대한 공포보다 죽음, 시체 또는 실패, 조소, 위신에 대한 공포가 많아지는 시기이다.<sup>3)</sup>

이러한 학령기 아동이 입원하는 경우 병원이라는 낯선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은 아동에게 공포, 염려, 불안을 자아내게 한다.<sup>4)5)6)7)8)</sup>

입원이란 환아에게 뿐만아니라 그 가족 전체에 대한 충격적인 사건이며 특히 어머니들은 자녀의 입원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불편함과

\* 이화여자 대학교 간호대학 석사학위 논문

- 1) Rogers, M. *An introduction to the theoretical basis of Nursing* Philadelphia; F.A. Davis 1970.
- 2) Erikson, E.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1950.
- 3) 하영수, 이자형 아동간호학, 서울; 수문사, 1982.
- 4) Erickson, F. "When 6~12 year olds are ill" *Nursing outlook*, 1965, July.
- 5) Levy, David, M. "Psychic trauma of operations in Children" *American J. of Disease of Children*, Vol. 69, 1945, pp. 7~25.
- 6) Blom, G.E. "The reactions of hospitalized children to illness", *Pediatrics*, 1958, sep. pp. 590~600.
- 7) Burling, K.A., and Collipp, P.J. "Emotional responses of hospitalized children", *Clinical Pediatrics*, No. 8, 1969, Nov, pp. 641~46.
- 8) Marcinek, M.B. "Stress in the surgical patient", *American J Nursing*, 1977, Nov, pp. 1809~11.

공포와 불안을 느끼게 된다.<sup>9)10)</sup>

환아의 어머니는 그녀의 역할 수행에 대한 죄 의식과 더불어 낯선 병원환경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불안, 자녀가 당하는 고통, 가정에 대한 책임감 등으로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sup>11)12)13)</sup>

많은 학자들은 부모의 불안은 그 자녀에게 큰 영향을 주어 부모의 불안 및 공포감이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가정하고 있다.<sup>14)15)</sup>

입원한 환아가 공포감을 갖게 되면 의료팀과 환아간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환아의 감정적 표현, 장애를 받아 입원기간이 지연될 뿐 아니라 퇴원 후에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학령기 아동의 경우, 공포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인기에서도 그대로 공포가 유발되어 성숙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sup>16)17)18)</sup>

이와같이 입원한 환아가 경험하는 불안과 공포는 신체적 외상만큼이나 심각하고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그들이 가지는 공포감의 요인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sup>19)20)</sup>

이에 본 연구는 Geer와 Spielberger에 의해 작성된 자기보고형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학령기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 및 그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을 측정하여 정상아 집단과 비교하고 어머니와 환아의 일반적 특성이 정서적 불안 및 일반적 공포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학령기 환아를 위

한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시도되어졌다.

##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환아의 어머니와 정상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2. 환아와 정상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다.
3.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4.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의 관계를 알아본다.
5.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 C. 용어의 정의

1.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 : 자녀를 돌보고 있는 어머니의 정서상태를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로 측정할 것을 말한다.
2. 상황불안(Anxiety-State) : 시간과 공간에 따라 그 정도가 변화하는 인간 유기체의 정서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sup>21)</sup> 자녀가 입원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갖는 정서상태와 정상아를 돌보는 어머니가 갖는 정서상태를 의미한다.
3. 기질불안(Anxiety-Trait) : 불안경향에 있

9) Freiberg, K.H. "How parents react when their child is hospitalized", *American Journal of Nursing*, 1972, July, pp. 1270~72.

10) Issner, N. "The family of hospitalized child",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7, No. 1, pp. 5~12.

11) 하영수, 이자형, 전계서 1982.

12) 김계숙 아동 성장발달과 건강 서울 : 양문출판사, 1980.

13) 조희 "어린이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 *최신의학* 제20권 3호, 1977, pp. 112~20.

14) Marlow, D.R. *Pediatric-Nursing* 5th edition Philadelphia: Saunders Co., 1977.

15) Sarason, S.B.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hn Wiley & Sons Inc., 1960.

16) 김성태 발달심리학 서울 : 법문사, 1978.

17) 김계숙 전계서 1980.

18) Sipowicz, R.R. and David T.A. "Psychological responses of children to Hospitalization", *Amer. J. Dis. child.*, vol. 109, March, pp. 228~31.

19) Levy, D.M. . . . 1945.

20) Bellack, J.P. "Helping a child cope with the stress of injury" *American Journal of Nursing* vol. 74, No. 8, pp. 1491~94.

21) 김정택,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78.

어 비교적 변화하지 않는 개인차를 지닌 동기가 획득된 행동성향을 말하는 것으로서<sup>22)</sup> 임원과 계없이 평상시에 어머니를 갖는 정서상태를 의미한다.

4. 일반적 공포감(General Fearfulness) : 두려움과 걱정으로 인해 사물이나 상황으로 부터 도피하려는 것으로 FSS-Ⅱ (Fear Survey Schedule-Ⅱ)에 의한 총점(total-score)으로 측정되며 학령기 환아가 느끼는 공포정도를 말한다.

#### D. 연구의 제한점

1. 본 연구는 그 대상자를 서울시내에 위치한 대학부속병원 및 국민학교에서 표집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를 확대 해석하여 일반화할 수는 없다.

2. 본 연구에서 아동의 일반적 공포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FSS-Ⅱ)는 사회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아직 표준화 되지 않았다.

## Ⅱ. 연구 방법

### A. 연구 대상

1. 환아군 : 1983년 9월 5일부터 동년 10월 3일 사이에 서울 특별시내 3개의 대학부속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질환아를 제외한 만 7세에서 12세 학령기 환아 81명과 병원에서 그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정상아군 :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 H 국민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9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 B.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도구가 사용되었다.

1.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울 측정하기 위한 도구(부록 참조) : STAI(State-Trait Anxiety Inventory)는 Spielberger의 2인<sup>23)</sup>에 의하여 제작되었으며 불안척도는 자기보고형(Self report-form)으로 되어있고 상황불안과 기질불안 각각 20문항씩으로 구성된 4점 척도 질문지이다. 국내에서 한<sup>24)</sup>에 의해 5점 척도로 수정되어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용된 STAI 검사 신뢰도 검증은  $\alpha=.82$ (기질불안),  $\alpha=.88$ (상황불안)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여 상황불안 척도를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조금 그렇다. ③ 보통으로 그렇다. ④ 많이 그렇다. ⑤ 아주 많이 그렇다 로, 기질불안 척도를 ① 거의 그렇지 않다. ② 가끔 그렇다. ③ 보통으로 그렇다. ④ 자주 그렇다. ⑤ 언제나 그렇다로 하였다. 채점방법은 ① 번에서 ⑤ 번까지의 항목을 1점에서 5점 까지로 채점하나 상황불안에서 10개, 기질불안에서, 7개의 도치문항에 대해서는 반대로 5점에서 1점으로 채점하게 되었다.

2. 아동의 일반적 공포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부록 참조) : FSS-Ⅱ.(Fear Survey Schedule-Ⅱ)는 Geer<sup>25)</sup>에 의하여 제작된 51문항으로 구성된 7점 척도 질문지를 기반으로 Swanson<sup>26)</sup>이 55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로 수정 보완하였다. Swanson에 의한 FSS-Ⅱ. 검사 신뢰도 검

22) 김정택, 상계서.

23) Spielberger, C.D.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1972.

24) 한정숙, "놀이 교육이 심도지술을 받는 환아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3.

25) Geer, J.H.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fear" *Behav. Res. Ther.*, vol. 3, 1965, pp.45~53.

26) Swanson, A.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 general fearfulness and the child's mother's anxiety self differentiation and accuracy of perception of her child general fearfulness", N.Y.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1975.

증은  $\alpha=.943$ 으로 나왔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보완하여 52문항으로 구성된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공포감 척도는 ① 전혀 무섭지 않다. ② 조금 무섭다. ③ 보통 무섭다. ④ 많이 무섭다. ⑤ 아주 많이 무섭다이며 채점 방법은 ①번에서 ⑤번까지의 항목을 1점에서 5점으로 채점하게 되어 있다.

### C.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1983년 9월 5일부터 동년 10월 3일까지 약 4주간 동안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아군은 7세에서 12세의 학령기환아와 그들의 어머니에게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척도, 환아의 공포감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지 90부를 병동 간호원에게 의뢰하거나 본인이 직접 면담하여서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뒤 참여하기로 승락한 대상자에 한하여 배부 회수하였고, 정상아군에서 아동용은 국민학교 교사의 협조를 받아 학교에서 실시하여 100부를 회수하였고 어머니용은 가정에서 작성하도록 하여 5일의 여유를 주어 98부가 회수되었다. 이 중 설문지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경우 및 대상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을 제외한 환아군 81부, 정상아군 95부가 본 연구 자료가 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Program 을 이용하여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X^2$ -test, 두 집단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 및 아동의 일반적 공포감의 비교를 위해 t-test,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서적 불안 및 일반적 공포감의 관계를 알기위해 t-test, 분산분석 (Variance analysis). 그리고 환아의 어머니의 상황불안과 기질불안간의 상관관계, 환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sup>27)</sup>

27) 정 영진, 실용 현대 통계학, 서울; 선진문화사, 1980.

## III. 연구 결과

### A.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아동의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성별, 형제수, 형제순위에 대하여 조사하고 어머니 일반적 특성으로, 연령, 교육정도, 종교에 대하여 조사하여 환아군과 정상아군의 유사성을  $X^2$ -test 로 검정하였을 때 모든 사항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으로써 두 집단간의 일반적 특성은 유사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B.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비교

환아의 어머니와 정상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 점수를 비교하기 위하여 STAI로 측정된 결과 환아군에서 평균 55.64, 표준편차 13.92이었으며 정상아군에서 평균 46.04, 표준편차 11.735의 어머니가 정상아의 어머니보다 정서적 불안이 매우 유의적으로 높았다. ( $P=0.000$ )(표 1 참조)

〈표 1〉 두 집단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에 대한 유의성 검정

집 단	실수	평균	표준 편차	t-value	p-value
환 아 군	81	55.6	13.92	4.97	.000
정 상 아 군	95	46.0	11.74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점수를 낮은점수, 중간점수, 높은점수로 구분하여 백분율로 조사한 결과, 환아군에서는 낮은점수가 17명(21%), 중간점수가 58명(71.6%), 높은점수가 6명(7.4%)이었고, 정상아군에서는 낮은점수가 47명(48.4%), 중간점수가 49명(51.6%)이며 높은점수의 정서적 불안을 가진 어머니는 하나도 없었다(표 2 참조)

<표 2>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점수의 백분율

집 단	낮은점수 (20~46점) 실수(%)	중간점수 (47~73점) 실수(%)	높은점수 (74~100점) 실수(%)	총 계 실수(%)
환 아 군	17(21.0)	58(71.6)	6(7.4)	81(100)
정상아군	46(48.4)	49(51.6)	0( 0)	95(100)

### C. 아동의 일반적 공포감 비교

환아의 정상아의 일반적 공포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FSS-II로 측정된 결과 환아군에서 평균 143.5, 표준편차 23.91, 정상아군에서 평균 126.8, 표준편차 35.17로서 일반적 공포감은 환아가 정상아 보다 매우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00) (표 3 참조)

<표 3> 두 집단간의 아동의 일반적 공포감에 대한 유의성 검정

집 단	실수	평균	표준 편차	t-value	P-value
환 아 군	81	143.5	23.91	3.62	.000
정 상 아 군	95	126.8	35.17		

### D.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의 관계를 t-test 및 분산분석(Variance Analysis)을 한 결과 종교를 제외한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기질불안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5)

종교에 따른 어머니의 기질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가 없는 어머니 기질불안은 평균 58.9 표준편차 10.14이었고, 종교가 있는 어머니의 기질불안은 평균 51.34, 표준편차 12.07로서 종교가 없는 어머니가 종교가 있는 어머니보다 기질불안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21)(표 4 참조).

종교에 따른 어머니의 상황불안과의 관계에서 종교가 없는 어머니의 상황불안은 평균 59.1, 표준편차 14.95 이었고, 종교가 있는 어머니의 상황불안은 평균 54.7, 표준편차 13.61로서 종교가 없는 어머니가 종교가 있는 어머니보다 상

황불안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t-test 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적이 아니었다(P=0.257).

아동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상황불안과의 관계에서 자녀의 연령이 7~9세인 어머니의 상황불안은 평균 57.5, 표준편차 15.06 이었고 자녀의 연령이 10~12세인 어머니의 상황불안은 평균 53.9, 표준편차 12.67로서 자녀가 어릴수록 어머니의 상황불안은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t-test 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적이 아니었다(P=0.244).

아동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상황불안과의 관계에서 남아의 어머니의 상황불안은 평균 56.8, 표준편차 13.60 였고 여아의 어머니의 상황불안은 평균 53.1 표준편차 14.55로서 남아의 어머니가 여아의 어머니보다 상황불안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t-test 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적이 아니었다(P=0.271). (표 5 참조)

### E.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의 관계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의 관계를 t-test 및 분산분석(Variance Analysis)을 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 입원경험, 아동의 연령 성별에서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32.1, 표준편차 23.87 이었고 어머니의 연령이 29~34세인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53.0, 표준편차 19.65로서 분산분석(Variance Analysis)을 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높았다(P=0.0059).

어머니가 입원경험이 없는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49.9 표준편차 24.28 이었고 어머니가 입원경험이 있는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36.9 표준편차 21.91 으로서 어머니가 입원경험이 없는 환아가 어머니가 입원경험이 있는 환아보다 높은 일반적 공포감을 나타냈다(P=0.014).

아동의 연령이 7~9세인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49.7, 표준편차 23.29 였고 10~12

<표 4>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기질불안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기 질 불 안			t or F	P		
	실 수	평 균	표준편차				
어 머 니	연 령	25~34세	32	56.5	13.30	2.535	.0857
		35~39세	30	50.1	11.68		
		40세이상	19	51.4	8.95		
어 머 니	최 종 학 령	국민학교	9	54.3	8.49	.786	.4591
		중·고등학교	50	53.9	12.46		
		대학교	22	50.2	12.30		
어 머 니	종 교	없 다	17	58.9	10.14	2.36	.021*
		있 다	64	51.3	12.07		
어 머 니	입 원 경 령	없 다	41	54.4	11.75	1.09	.278
		있 다	40	51.5	12.29		
아 들	연 령	7~9세	40	54.3	12.47	1.02	.313
		10~12세	41	51.6	11.60		
	성 별	남	56	54.2	12.18	1.47	.145
	여	25	50.0	11.41			
아 들	형제수	1 명	3	60.3	17.67	1.250	.2974
		2 명	37	50.4	11.94		
		3 명	30	54.9	12.54		
		4명 이상	11	54.0	8.57		
아 들	형 제 순 위	두 자	3	60.3	17.67	1.479	.2269
		첫 째	31	54.3	13.84		
		중 간	16	55.2	8.66		
	막 내	31	49.7	10.74			
아 들	입 원 경 령	없 다	58	53.9	12.54	1.13	.260
		있 다	23	50.5	10.53		
아 들	입 원 기 간	1주일이내	47	50.9	9.99	1.416	.2446
		1개월이내	25	54.8	15.27		
	6개월이내	6	60.2	7.91			
	6개월~1년	3	55.0	15.52			

<표 5>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어머니의 상황불안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상 황 불 안			t or F	P	
	실 수	평 균	표준편차			
연 령	25~34세	32	59.2	16.07	2.350	.1021
	35~39세	30	51.6	13.01		
	40세이상	19	56.1	9.72		
어 최 학 력	국민학교	9	54.2	11.79	.089	.9151
	중·고등학교	50	56.1	14.43		
	대학교	22	55.1	14.05		
어 종 교	없 다	17	59.1	14.95	1.14	.257
	있 다	64	54.7	13.61		
니 입 경 험	없 다	41	54.7	14.48	.63	.533
	있 다	40	56.6	13.43		
연 령	7~9세	40	57.5	15.06	1.17	.244
	10~12세	41	53.9	12.67		
아 성 별	남	56	56.8	13.60	1.11	.271
	여	25	53.1	14.55		
형제수	1 명	3	52.3	7.57	.653	.5834
	2 명	37	53.6	14.93		
	3 명	30	58.2	14.28		
	4명이상	11	56.2	10.27		
형 계 순 위	독 자	3	52.3	7.57	1.157	.3316
	첫 짜	31	58.7	16.75		
	중 간	16	56.6	9.56		
	막 내	31	52.4	12.81		
동 입 경 험	없 다	58	55.8	14.29	.15	.878
	있 다	23	55.3	13.23		
입 원 기 간	1주일이내	47	54.9	12.26	1.256	.2955
	1개월이내	25	54.1	16.87		
	6개월이내	6	65.5	13.40		
	6개월~1년	3	60.0	7.94		

세인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37.4, 표준편차 23.20 으로서 7~9세의 환아가 10~12세의 환아보다 높은 일반적 공포감을 나타냈다(P=0.020).

남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39.8 표준편차 24.67이었고 여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51.

8, 표준편차 20.20 으로서 여아가 남아보다 높은 일반적 공포감을 나타냈다(P=0.037).

형제순위에서 독자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51.7, 표준편차 7.09, 첫째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44.9 표준편차 24.33이었고, 막내의 일반적 공포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분산분석

<표 6>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의 관계

일반적 특성	일반적 공포감			t or F	P	
	실 수	평균	표준편차			
연령	25~34세	32	153.0	19.65	5.486	.0059**
	35~39세	30	140.5	24.82		
	40세이상	19	132.1	23.87		
최종 학력	국민학교	9	146.1	24.57	2.680	.0763
	중·고등학교	50	147.3	24.63		
	대학교	22	133.7	19.83		
종교	없다	17	145.2	23.73	.34	.738
	있다	64	143.0	24.12		
입원 경험	없다	41	149.9	24.28	2.52	.014*
	있다	40	136.9	21.91		
연령	7~9세	40	149.7	23.29	2.37	.020*
	10~12세	41	137.4	23.20		
성별	남	56	139.8	24.67	2.12	.037*
	여	25	151.8	20.20		
형제수	1명	3	151.7	7.09	.308	.8198
	2명	37	143.9	26.20		
	3명	30	144.2	20.49		
	4명이상	11	138.1	28.64		
형제 순위	독자	3	151.7	7.09	.230	.8755
	첫째	31	144.9	24.33		
	중간	16	143.5	27.41		
입원 경험	없다	58	146.2	23.88	1.63	.107
	있다	23	136.7	23.09		
기간	1주일이내	47	142.3	25.35	.657	.5809
	1개월이내	25	142.5	20.28		
	6개월이내	6	148.2	28.41		
	6개월~1년	3	161.0	23.64		

\* P<.05 \*\* P<.01

(Variance Analysis)을 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적이 아니었다(P=0.8755).

입원경험이 없는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46.2, 표준편차 23.88이었고 입원경험이 있는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평균 136.7, 표준편

차 23.09로서 입원경험이 없는 환아가 입원경험이 있는 환아보다 일반적 공포감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t-test 한 결과 그 차이는 유의적이 아니었다(P=0.107). (표 6 참조).



**F. 환아의 어머니의 상황불안과 기질불안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상황불안과 기질불안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상황불안과 기질불안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r=.694, P=0.000$ ) 어머니의 기질불안이 높을수록 상황불안도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참조).

**G. 환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간의 상관관계**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어머니의 상황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 간에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r=.118, P=0.146$ ).

어머니의 기질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 간에도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r=.169, P=0.066$ )(표 7 참조).

(표 7)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간의 상관계수(N=81)

	기질불안	일반적 공포감
상 황 불 안	.6940 (P=.000)	.1184 (P=.146)
기 질 불 안	—	.1689 (P=.066)
일반적공포감	—	—

**IV. 고 찰**

본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면 두 집단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비교에 있어서 정상아의 어머니보다 환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00$ ). 이 결과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입원 자체만으로 높은 불안과 공포, 불편함을 느낀다는 Freiberg<sup>28)</sup> Carandang 외 3인<sup>29)</sup> 등의 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국내에서 행한 연구로서 자녀의 입원으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불안을 느낀다고 보고한 한<sup>30)</sup>, 조<sup>31)</sup>, 김<sup>32)</sup> 등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Spielberger<sup>33)</sup>의 STAI 이론에 의하면 정서적 불안을 점수별로 구분하였을 때 상황불안의 낮은 점수는 차분함과 침착함의 상태를 지시하고 중간정도의 점수는 긴장과 염려의 적당한 수준을 가르치며 높은 점수는 공포에 접근하는 과도한 염려와 두려움의 상태를 반영해 준다고 하였다. 이 기준으로 미루어보면 본 연구에서 환아의 어머니는 정상아의 어머니보다 침착 차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표 2 참조)

두 집단간의 아동의 일반적 공포감의 비교에서 환아가 정상아 보다 일반적 공포감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00$ ). 이러한 결과는 Burling<sup>34)</sup> Erickson<sup>35)</sup>, 하<sup>36)</sup> 등의 주장을 지지해 주는 것으로 학령기 입원아가 입원하지 않은 정상아보다 공포정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Astin<sup>37)</sup>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28) Freiberg, 전제서 1972.

29) Carandang, M.L.A., H.F. Carlyle, P.A. Hines & M.S. Steward, "The Role of Cognitive level and sibling illness in children's conceptualizations of illness" *American J. orthopsychiatry*, vol. 49, No. 3, 1979. pp.474~81.

30) 한경자, "아동의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1976. 제30권 4호 pp. 431~41.

31) 조희 전제서 1977.

32) 김계숙 전제서.

33) Spielberger, C.D. 전제서.

34) Burling, K.A. and Collipp, P.J. 전제서 1969.

35) Erickson, Florance 전제서.

36) 하영수, 이자형. 전제서.

37) Astin, Elizabeth W., "Self reported fears of hospitalized and non hospitalized aged Ten to Twelve" *Maternal-child nursing J.*, 1977, No. 6, pp. 17~24.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 즉 연령, 교육수준, 종교등과 어머니의 상황 불안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05$ ), 단지 어머니의 기질불안이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P=0.021$ ). 이는 종교를 가진 어머니가 기질불안이 낮기는 하여도 자녀의 입원이라는 상황에서는 종교유무와 상관없이 불안을 느끼는 것으로 여겨진다. 많은 연구에서 환아와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에 상관없이 불안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하였으며,<sup>38)39)40)</sup>

본 연구결과도 이러한 연구들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진다.

Wolfer<sup>41)</sup>는 소아의과 환아에 대한 불안반응 연구에서 환아 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불안정도가 유의적으로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환아연령이 어릴수록 어머니의 상황불안이 높은 경향은 보였으나 유의적은 아니었다( $P=0.244$ ). 조희<sup>42)</sup>의 연구결과에서는 어머니의 불안정도가 어머니의 연령, 종교, 교육수준에 따라서 유의적이었으나 환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적이지 아니었다. 김과김<sup>43)</sup>의 연구에서는 환자의 입원기간이 길수록 가족의 불안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입원기간이 길수록 어머니의 상황불안이 높아지는 경향은 보였으나 유의적은 아니었다( $P=0.2955$ ).

환아군의 일반적 특성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의 관계에서 환아의 성별, 연령, 어머니의 연령 및 입원경험은 일반적 공포감에 영향을 주

는 요소로서 여아가 남아보다 일반적 공포감이 높았으며( $P=0.037$ ), 7~9세의 환아가 10~12세의 환아보다 일반적 공포감이 높았다( $P=0.020$ ).

이 결과는 Croake & Knox<sup>44)</sup>와 Lapouse & Monk<sup>45)</sup> 등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지적 발달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아동전기(저학년)와 아동후기(고학년)의 지적기능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sup>46)</sup> 성장발달단계별 특성으로 미루어 볼때 저학년인 7~9세가 상황에 대처하는 지적능력이 적어서 공포를 더 느꼈다고 여겨진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은 높았으며( $P=0.0059$ ), 어머니가 입원경험이 없는 환아가 어머니가 입원경험이 있는 환아보다 높은 일반적 공포감을 나타냈다( $P=0.014$ ).

이는 연령이 낮은 어머니는 나이든 어머니 보다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데 숙달되지 못하여 환아와 대화할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하므로 환아는 공포를 더 느꼈다고 여겨지며 또한 어머니 자신이 병원생활 경험이 없으므로 환아에게 병원생활적응을 위한 실제적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는데서 환아가 공포를 더 느꼈을 것으로 해석된다.

환아의 어머니의 상황불안과 기질불안간의 상관관계에서 어머니의 상황불안과 기질불안 간에는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r=.694, P=0.000$ ).

이러한 결과는 높은 기질불안을 가진 사람이

38) Freiberg, K.H. 전제서.

39) 조희 전제서, 1977.

40) 이영자, 신경자, 김기환, "백혈병 환아어머니의 정서 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1977, , 33권 제 2 호 pp. 197~204.

41) Wolfer, J.A. "Pediatric Surgical pt's stress response and adjustmeut, *Nursing Research*, 1975, vol. 24, No. 4, pp. 244~48.

42) 조희, "입원한 환아어머니의 불안해소를 위한 실험연구", 1980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3) 김현실, 김주희, "입원환자 가족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1983, 제13권 제 1 호 pp. 42~53.

44) Croake, J.W. and F.H. Knox, "The changing nature of children's fears" *Child study Journal*, 1973, vol. 3, No. 2.

45) Lapouse, Rema and Mary, A. Monk, "Fears and worrie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children," *American J. orthopsychiatry*, 1959, vol. 29, pp. 803~18.

46) 김계숙 전제서.

47) Spielberger, C.D. 전제서

48) 김현실, 김주희, 전제서.

주어진 상황을 더 많이 충격어 주는 상황으로 받아드리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상황불안으로서 반응한다는 STAI 이론<sup>47)</sup>을 지지해 주었다.

김과김<sup>48)</sup>의 연구에서도 기질불안이 높은집단은 상황불안도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환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는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

Lego<sup>49)</sup>는 아동의 공포와 그들의 어머니의 공포사이에는 비례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가설을 세웠으나 11세된 학령기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와의 실험에서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Miller<sup>50)</sup>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Swanson<sup>51)</sup>은 8½~11½세의 국민학생 103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은 자녀의 일반적 공포감과 유의적 상관관계가 없음을 보고하고 어머니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Spielberger의 STAI를 사용하여 상황불안을 측정하면 이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언을 하였으나 STAI를 어머니의 불안 측정도구로 사용한 본 연구에서도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sup>52)</sup>은 심도자술을 받는 환아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아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아의 불안반응간에 유의적 상관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한 연구들과 일치하기는 하나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은 자녀에게 전달된다는 이론<sup>53)</sup>을 지지하지 못하였다.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밝힌대로(표 2 참조)대

부분의 환아의 어머니가 중간정도이하의 정서적 불안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어머니의 중정도의 불안은 아동의 성장 및 자신감과 세상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데 기초가 되며 어머니의 불안이 이렇게 작용할 때에는 아동의 일반적 공포감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sup>54)55)</sup>이 본 연구의 결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환아의 공포수준은 환경적 요소들에 의하여 영향받으며 어머니의 불안정도만이 변수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환아의 공포정도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낸다는 사실은 아동 간호방법에 깊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환아의 공포수준과 그들의 어머니의 불안수준에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이 두 요소가 모두 정상이 집단보다 높다는 사실은 아동간호에 있어서 환아와 그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총체적인 간호가 적용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 IV. 결론 및 제언

학령기 환아의 일반적 공포감과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을 정상아집단과 비교하고 분석하여 학령기 환아를 위한 포괄적이고 과학적인 간호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여 하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1983년 9월 5일 부터 동년 10월 3일까지 환아군으로 학령기 환아와 그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 각각 81명과, 정상아군으로 국민학교생과 그들의 어머니 각각 95명을 대상으로 Spielberger의 STAI와 Geer의 FSS-II를 사용

49) Lego, S. "An investigation of the Sharing of Common years between mothers and their eleven year-old children in middle class families" 1977,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

50) Miller, S.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general fearfulness their daughter's locus of control and general fearfulness in the daughter," 1974, N.Y.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51) Swanson, A. 전제서.

52) 한정석, 전제서.

53) Marlow, Dorcrthy 전제서.

54) May, R. *The meaning of Anxiety*, 1950 New York: Ronald press.

55) 김기석, 성격 발달과 정신 병리학, 1976, 중앙적성연구소.

하여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S.P. S.S. Program에 의하여 X<sup>2</sup>-test, t-test, 분산 분석,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환자의 어머니가 정상아의 어머니보다 정서적 불안이 높았다(P=0.000).

2. 환아가 정상아보다 일반적 공포감이 높았다(P=0.000).

3. 환자의 일반적 특성중에서 아동연령, 아동성별, 어머니의 연령 및 어머니의 입원경험과 일반적 공포감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7~9세의 환아가 10~12세의 환아보다 일반적 공포감이 높았다(P=0.020).

나. 여아가 남아보다 일반적 공포감이 높았다(P=0.037).

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 환자의 일반적 공포감은 높았다(P=0.0059).

라. 어머니가 입원경험이 없으면 환자의 일반적 공포감은 높았다(P=0.014).

4. 환자의 어머니의 기질불안이 높을수록 상황불안도 높았다(r=0.694, P=0.000).

5.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과 환자의 일반적 공포감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r=0.1184, P=0.146).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학령기 환자의 일반적 공포감은 어머니의 정서적 불안 뿐만 아닌 어머니의 일반적 특성 및 다른 여러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간호원은 환아가 가지는 공포감 정도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를 뿐아니라 이해능력도 연령에 따라 다르므로 달리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질병 및 입원 처치 등으로 가중되어질 수 있는 학령기 환자의 공포와 환상에 대하여 부담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어 그들이 가지는 환상과 공포를 감소시켜 주도록 노력해야겠다.

국내 병원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위한 병동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유아와 함께, 때로는 성인과 함께 병원생활을 하므로 동료들(Peer-group)과 멀어진 환경속에서의 생활이 공포감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가능하면

비슷한 연령끼리 한 병실에 머물게 하며 책자를 준비하여 처치목적 및 절차를 성장 발달수준을 고려하여 설명하므로써 변화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이와같이 학령기 환자의 공포감은 환경적 변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환아와 어머니와의 관계뿐 아니라 동료그룹(Peer group) 및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고려한 광범위한 연구가 계속되어 과학적인 간호방법이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김기석(1976), 「정격발달과 정신병리학」,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김계숙(1980), 「아동성장발달과 건강」, 서울: 양문출판사.
- 김성태(1978), 「발달 심리학」, 서울: 법문사.
- 김정택(1978),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실, 김주희(1983), 「입원환자 가족의 불안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학회지」, 제13권, 제1호(대한간호학회).
- 정영진(1980), 「실용현대통계학」, 서울: 선진문화사.
- 이영자, 신경자, 김기환(1977) “백혈병 환아어머니의 정서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제33권, 제2호.
- 한경자(1976), “아동의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중앙의학」, 제30권, 제4호. pp. 431~41.
- 한정석(1983), 「놀이교육이 심도자술을 받는 환자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희(1977), “어린이 입원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반응” 「최신의학」, 제20권, 제3호, pp. 112~20.
- 조희(1980), 「입원한 환아어머니의 불안해소를 위한 실험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영수, 이자형(1982), 「아동 간호학」, 서울: 수문사.
- Astin, Elizabeth W. (1977), “Self reported fears of hospitalized fears of hospitalized and non hospitalized children aged Ten to Twelve”, *Maternal-child nursing J.*, No. 6, pp. 17~24.
- Bellack, Janis Peacock(1974), “Helping a child cope with the stress of injury” *American Journal*

- of Nursing, Vol. 74, No. 8, pp. 1491~94.
- Blom, Gaston E. (1958), "The reactions of hospitalized children to illness," *Pediatrics*, Sep. pp. 590~600.
- Burling, K.A. and Collipp P.J. (1969), "Emotional responses of hospitalized children," *Clinical Pediatrics*, Nov. No. 8, No. 11, pp. 641~46.
- Croake, J.W. and F.H. Knox (1973), "The changing nature of children's Fears," *Child Study Journal*, Vol. 3, No. 2.
- Carandang, M.L.A., H.F. Carlyle, P.A. Hines & M.S. Steward (1979), "The Role of cognitive level and sibling illness in children's conceptualizations of illness. *American J. Orthopsychiatry*, Vol. 49, No. 3.
- Erickson, Florence (1965), "When 6~12 year olds are ill," *Nursing outlook*, July.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Freiberg, K.H. (1972), "How parents react when their child is hospitalized," *American Journal of Nursing*, July. pp. 1270~72.
- Geer, James, H. (1965), "The development of a scale to measure fear," *Behav. Res. Ther.*, Vol. 3, pp. 45~53.
- Gissner, Nathalie. (1975), "The family of hospitalized child,"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Vol. 7, No. 1, pp. 5~12.
- Lapouse, Rema and Mary. A. Monk (1959), "Fears and Worries in a representative sample of children," *American J. Orthopsychiatry*, Vol. 29, pp. 803~18.
- Lego, S. (1971), *An investigation of the sharing of common fears between mothers and their eleven year-old children in middle class famil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 Levy, David, M. (1945), "Psychic trauma of operations in children," *American J. of Disease of Children*, Vol. 69, pp. 7~25.
- Marcinek, Magaret, B. (1977), "Stress in the surgical patient," *American J. Nursing*, Nov. pp. 1809~11.
- Marlow, Dorothy, R. (1977), *Pediatric-Nursing*, 5th edition Philadelphia: Saunders Co.
- May, R. (1950), *The meaning of Anxiety*, New York: Ronald Press.
- Miller, S. (1974),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general fearfulness their daughter," N.Y.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Rogers, M. (1970), *An introduction to the theoretical basis of nursing*, Philadelphia: F.A. Davis.
- Sarason, S.B. (1960), *Anxie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hn Wiley & Sons Inc.
- Spielberger, C.D. (1972), "Anxiety as an Emotional State," *Anxiety current Trends in Theory and Research*, N.Y.: Academic Press.
- Swanson, A. (1975),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child general fearfulness and the child's mother's anxiety self differentiation and accuracy of perception of her child general fearfulness," N.Y. univers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 Sipowicz, R.R. and David T.A. Vernon (1965), "Psychological responses of childrens to Hospitalization", *Amer. J. Dis. Child*, Vol. 109, March, pp. 228~31.
- Wolfer, J.A. (1975), "Pediatric surgical pt's stress response and adjustment," *Nursing Research*, Vol. 24, No. 4, pp. 244~48.

—Abstract—

## Studies on the General Fearfulness of Hospitalized School-Age Children and Their Mother's Emotional Anxiety

Ro Seung-Ok

College of Nursing, Ewha Womans University

The general fearfulness of hospitalized school-age children and the emotional anxiety of their mothers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o those of normal children and their mothers, in order to provide theoretical basis for establishing comprehensive nursing care of hospitalized children including their mothers.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from Sept. 5th to Oct. 3rd, 1983. A total of 81 hospitalized children and their mothers were investigated and 95 normal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their mothers as control group were surveyed. The general fearfulness of children and the emotional anxiety of their mothers were measured through questionnaire by using Geer's FSS- II scale and Spielberger's STAI scale, respectively.

The results were analyzed by computer using S.P.S.S. program and summarized as follows:

1. The emotional anxiety of the mothers of hospitalized children was greater than that of normal children's mothers. ( $P=0.000$ ).
2. The general fearfulness of hospitalized children was greater than that of normal children ( $P=0.000$ )
3. The general fearfulness of hospitalized children varied with children's age and sex, mother's age and mother's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 a) The general fearfulness of the hospitalized children at the age of 7~9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age 10~12. ( $P=0.020$ )
  - b) Girl's scored greater fearfulness than boys. ( $P=0.037$ )
  - c) The younger mother's age resulted in the higher children fearfulness. ( $P=0.0059$ ).
  - d) When the mothers did not have experience of hospitalization, the children's fearfulness was high. ( $P=0.014$ )
4. The anxiety-state of hospitalized children's mother was proportionally reacted to their anxiety-trait. ( $r=0.694$ ,  $P=0.000$ )
5.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emotional anxiety and their hospitalized children's general fearfulness failed to show statistical significance. ( $r=0.1184$ ,  $P>0.05$ ).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general fearfulness of hospitalized children was affected by environmental factors beside mother's emotional anxiety. An extensive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general fearfulness of hospitalized children is needed.